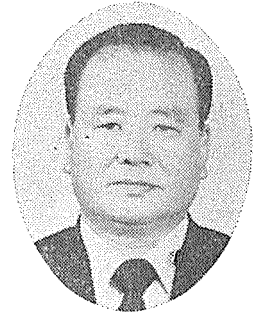


●第15回 全國圖書館大會 開會辭

現行 圖書館法改正이  
가장 時急한 當面 問題이다.



會長 金 鍾 浩

오늘 뜻깊은 第15回 全國圖書館大會를 맞이하여 이자리에 臨席하신 內外貴賓 여러분, 그리고 圖書館界 同志여러분!

이大會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바쁘시고 먼거리임에도 不拘하시고 이렇게 參席하여주신데 대하여 深甚한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與件속에서 우리나라 圖書館發展을 위하여 밤낮없이 努力해오신 同志여러분들의 勞苦에 거듭 致賀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圖書館人들은 「韓國圖書館의 近代化」라는 目標를 내걸고 이 目標達成을 위하여 心血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우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全國圖書館大會도 우리들의 目標達成을 위한 研究와 進路를 協議檢討하고 그 對策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近來에 이르러 우리 國家社會는 近代化의 促進과 더불어 精神資源의 開發이 切實히 必要하게되었고 따라서 精神資源의 寶庫인 圖書館의 社會的 必要性은 날로 增大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와서는 企業의 成長을 위하여서도 새로운 情報의 入手와 아울러 精神資源의 開發을 基礎로 하지 않고서는 到底히 日日發展하는 企業의 成長을 期待할 수 없으며 이와같은 現實은 모든 分野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精神資源開發에 中心的 役割을 擔當하는 圖書館의 育成策이 時急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圖書館現況은 어떠합니까? 그 施設, 서어비스, 資料實態 등 全般的인 面에서 심한 落後現狀을 면치 못하고있는 안타까운 現實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찌기 圖書館育成策이 있어본 일이 없다」고 強調해도 우리는 아닐 것입니다. 15年前에 制定된 圖書館法이 오늘날까지 단한번의 改正이 없었다는 事實하나만 가지고도 圖書館政策의 철저한 不在를 正確히 代辯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機會있을 때마다 政府當局에 圖書館政策에 對하여 助言을 하고 長期的인 眼目에선 政策樹立을 促求하여 왔으나 그뜻이 關切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뜻을 굽히지말고 끊임없이 우리의 目標達成을 위하여 獻身 努力해야 될 것입니다.

本人은 여기서 우리나라 圖書館育成策을 크게 두가지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것이라고 平素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圖書館法을 基礎로 하여 基本政策을 具現하는 方法과 아울러 中點主義 圖書館育成에 주력하는 方法을 採擇하는 새로운 次元의 發展策을 펴나간다면 圖書館에 對한 社會的 要求에 積極 對處하는 圖書館의 發展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러한 政策의 實現을 위하여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우리들의 獻身的인 努力과 使命感에 불타는 意慾이 先行되어질때 비로소 可能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大會를 통하여 우리들의 責務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確認하고 아울러 圖書館人들이 團結된 힘을 과시하여 새로운 座標를 設定하는 機會가 되도록 진지한 討議가 進行되어 알찬 結實을 얻어주시기를 當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大會를 위하여 훌륭한 場所를 제공하여주시고 協助를 하여주신 유네스코 事務總長과 關係職員 여러분께 感謝를 드립니다.